

# 여명의 눈동자들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시대 번역과 월경

The Eyes of Dawn

:The translation on era and the crossing of the boundari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rrative

장수희\*

**국문요약** 이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서사인 『여명의 눈동자』가 1970년대 이후 매체를 바꾸어가며 반복해서 재생산되면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추적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소설 『여명의 눈동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전의 서사와 위안소에서의 생활, 전쟁이 끝난 후의 삶이 시간적 순서대로 이어지는 텍스트이다. 이 소설을 원텍스트로 하여 이후 90년대에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만들어졌다. 한국에서 대유행을 했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여소룡 감독은 〈여명의 눈동자〉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 〈軍妓慰安婦(군기위안부)〉를 제작한다. 웹툰 〈여명의 눈동자〉는 원작과 드라마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제작된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는 무대 공연이라는 한정된 시공간 속에서 4.3의 역사를 복권하는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추이를 보면, 이후 소설 『여명의 눈동자』를 원작으로 한 서사물이 제작될 때 소설 『여명의 눈동자』가 다루었던 일제시기와 해방기, 그리고 한국전쟁기의 역사 또한 그 시기에 맞게 다시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여명의 눈동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 제목이 붙은 중국 일본군 '위안부' 영화의 제작은 일본군 '위안부' 서사가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이 곳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핵심어** 여명의 눈동자, 김성중, 일본군 '위안부' 서사자료, 일본군 '위안부', 4.3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 차례

1. 긴 시간 동안의 '여명의 눈동자'들
2. 여자 스파이 서사가 만들어내는 민족과 반공국가
3. 사라진 혹은 미군과 계속되는 인종적 편견
4. 4·3 서사의 복권과 일본군 '위안부' 재판
5. 중국 '여명의 눈동자'의 변화
6. 결론

## 1. 긴 시간 동안의 '여명의 눈동자'들

하나의 이야기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그 시대와 사회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드러낸다면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이야기는 그 사회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추이는 긴 시간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때로는 장르를 넘나들고, 때로는 국경을 넘으며 변화한 『여명의 눈동자』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시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매체를 이동하면서 강조되는 이야기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중의 사랑받는 이야기가 긴 시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재생산되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이러한 반복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서사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어떠한 서사적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또한 이 논문에서 다

루고자 하는 일본군‘위안부’ 서사로서의 소설 『여명의 눈동자』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sup>01</sup>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군‘위안부’ 이야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아직 많이 생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설 『여명의 눈동자』와 이를 둘러싸고 다양하게 다시 만들어진 서사들을 통해서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이 논문은 대중서사 속에서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재현되어 왔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자,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흐름 속에서 소설 『여명의 눈동자』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여명의 눈동자』는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일간스포츠』에 연재된 후, 10권의 소설로 단행본화되었다.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여성이 징모되어 위안소로 가기 전까지의 상황이 묘사되거나(김정환의 「수라도」 등), 전쟁 이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이 재현되거나(김정환의 「오기나와에서 온 편지」 등), 아시아태평양 전쟁 중 전쟁터에서의 일본군‘위안부’의 모습 묘사(박용구의 「함락직전」 등)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즉,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서

01 소설 『여명의 눈동자』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진동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극 속 여성 하위주체의 젠더 수행성: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파친코〉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23; 이호은, 「TV 드라마 작가론에 관한 연구: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의 작가 송지나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9; 김환표, 「TV 드라마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TV 드라마의 제작문화사(1956~2008)」,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09; Beglova Ekaterina, 「김성중 추리 소설 연구: 80년대 장편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0; 안경석·이장원·이국세·장소정, 「여명의 눈동자에 나타난 무대조명 디자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 2013; 백두산, 「민주화 이행기 텔레비전 드라마의 분단 재현 방식: 〈여명의 눈동자〉를 중심으로」, 『스토리&이미지텔링』 15, 2018; 권성훈, 「김종학 드라마의 이데올로기 구조와 문학적 재현방식: 〈여명의 눈동자〉(MBC, 1991)와 〈모래시계〉(SBS, 1995)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89, 2023.

사가 여성들의 연속적인 서사로 드러나지 않고, 소설 속에서 분절적으로 존재해 온 것이었다. 이런 서사가 소설 『여명의 눈동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전의 삶 - 위안소에서의 삶 - 해방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는 서사로 완성되게 된다.

소설 『여명의 눈동자』는 식민지 시기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를 망라하는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장편 대하 소설이다. 소설 1권에서 5권 초반까지가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5권부터 7권 중반까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시기, 7권 중반 이후부터 끝까지가 한국전쟁 전후를 시기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소설은 일본군 ‘위안부’가 된 윤여옥과 중국과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학병으로 전쟁에 가게되는 최대치와 장하림을 주인공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 전쟁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삶을 그리고 있다.

1975년부터 시작되어 단행본화된 『여명의 눈동자』는 연재 당시부터 큰 인기를 끌었고, 연재 도중 1980년 10월 우진필름의 정진우 감독에 의해 영화화가 기획되었다. 1981년 영화 촬영을 시작한 직후 대통령 비난<sup>02</sup>이 문제가 되어 구속<sup>03</sup>되었고, 한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sup>04</sup>되었다. 7년 뒤인 1988년에 다시 촬영을 재개<sup>05</sup>해 6시간짜리 2부작<sup>06</sup>으로 제작하려 했지만 결국 완성되지 못했다.

이후 1990년 MBC 문화방송 창사 30주년 특집극으로 김종학 연출, 송지나 각본으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촬영이 시작되었고, 1991년

02 성하춘, 「저질 영화에 치켜든 반기, 76년만에 철폐된 사전 검열」, 『오마이뉴스』, 2021.7.20, 인터뷰 내용 재인용.

03 「〈여명의...〉 제작중단 정진우씨 구속으로」, 『동아일보』, 1981.4.8.

04 「〈여명의 눈동자〉 촬영 재개 정진우 감독 보석으로 풀려」, 『경향신문』, 1981.5.2.

05 「사상최대 제작비 35억 〈여명...〉 5월 크랭크인」, 『경향신문』, 1988.4.19.

06 「국내 최대 영화인 6시간짜리 2부작으로 제작되는 〈여명의 눈동자〉」, 『경향신문』, 1988.4.19.

10월 7일부터 1992년 2월 6일까지 총 36회 방영되었다. 총 36회인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는 20회까지가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32회까지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33회부터 36회까지는 한국전쟁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제작은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해외 로케를 진행하였다. 당시 아직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현지인 영화감독인 여소룡을 코디네이터로 하여 하얼빈, 상하이, 난징, 쑤저우, 구이린 등에서 촬영을 진행하였다. 당시 현지 코디네이터를 담당했던 여소룡 감독은 2014년 같은 제목의 <黎明之眼여명의 눈동자><sup>07</sup>로 중국인 일본군‘위안부’ 영화를 완성한다.<sup>08</sup> 2014년 여소룡의 <黎明之眼여명의 눈동자>가 제작되기 이전에 여소룡 감독은 1992년 영화로 <軍妓慰安婦군기위안부>다른 제목 <지옥은 도대체 몇 겹인가(地獄究竟有几层)>를 제작한다. 여소룡 감독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 <여명의 눈동자> 촬영에 참여했지만 드라마를 찍으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sup>09</sup> 이 사례는 『여명의 눈동자』라는 서사가 드라마화되면서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영화에 영향을 끼친 사례이며, 서사가 매체를 달리하며 제작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를 생산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후 『여명의 눈동자』는 2012년에 이원국 발레단의 <여명의 눈동자><sup>10</sup>로 제작되어 2012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었고, 2020년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로 재생산된다. 뮤지

07 중국어로도 ‘여명의 눈동자’라고 번역되지만 한국어 제목으로는 ‘여명의 눈물’로 검색된다. 한국 드라마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08 李俐, 「吕小龙掌镜慰安妇电影《黎明之眼》最接近李小龙的打星还血性」, 『北京晚报-北晚新视觉网』, 2014.9.15. <https://www.takefoto.cn/viewnews>.

09 위의 글.

10 윤빛나, 「여명의 눈동자, 이원국발레단 만나 창작발레로」, 『독서신문』, 2012.9.19.

컬 〈여명의 눈동자〉는 (주)수키컴퍼니에서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작품으로 2시간 정도의 시간과 무대라는 공간이 한정되면서 또 다른 서사가 만들졌다. 한정된 시간과 무대라는 공간적 제약을 가진 뮤지컬로 재생산되면서, 감정 표현이 노래로 표현되기도 하고, 역사의 긴 흐름이 춤과 노래로 압축적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뮤지컬이 제작되는 비슷한 시기에 웹툰 〈여명의 눈동자〉가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었다. 웹툰 〈여명의 눈동자〉는 소설과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고, 2020년 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28일에 걸쳐 60화로 연재되었다. 웹툰은 1970년대 소설인 『여명의 눈동자』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 1990년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매체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많은 독자들이 웹툰의 회차에 댓글을 달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웹툰을 보는 세대와 독자들의 감상 또한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소설, 드라마, 뮤지컬에서는 볼 수 없는 장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웹툰은 뮤지컬처럼 소설의 전편을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작 소설과 드라마의 서사적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021년 1월 28일 60회를 제1부 종결로 하여 연재가 멈춘 상태인 웹툰 〈여명의 눈동자〉는 2023년 현재 언제 다시 이후의 내용이 이어져 연재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여명의 눈동자』라는 서사는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금씩 다르게 재생산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1975년에 연재를 시작해 1981년에 연재가 끝난 『여명의 눈동자』가 이후 시대와 매체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

펴보려고 한다. 나아가 여명의 눈동자가 시대에 따라 다시 쓰이고 향유 되는 과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서사가 각 시대와 장소의 변화를 따라 어떻게 재생산되고 정치적 담론을 만들어내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여자 스파이 서사가 만들어내는 민족과 반공국가

김성중은 인터뷰에서 ‘여명의 눈동자’라는 소설의 제목의 의미를 묻자, 국제적인 스파이였던 마타하리의 암호명에서 따왔다고 한 바 있다.<sup>11</sup> 마타하리Mata Hari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을 위한 첩자 혐의로 1917년에 처형된 네덜란드 출신의 무용가의 인도네시아어 예명이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어로 ‘마타 하리’를 ‘여명의 눈동자’로 해석한 듯하다. 이러한 김성중의 인터뷰들을 보면 일제-해방-6·25라는 역사를 관통하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는 김성중<sup>12</sup>에게서 일본 제국주의라는 적대와 해방 후 냉전 반공의 적대를 배경으로 ‘마타하리’와 같은 여자 스파이 서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일은 필연적인 것이기도 했다.

소설 『여명의 눈동자』 이전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여성인물의 침묵이나, 서사의 공백 등으로 일본군‘위안부’의 삶을 가시화시키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여명의 눈동자』는 일본군‘위안부’의 삶을 연속적 서사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항일과 냉전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여성스파이 서사와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결합은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대중적 전형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귀결된 측면이 있

11 오현주, 「일간스포츠에 두 작품 동시 연재…전무후무한 일이죠.」, 『백세시대』, 2016.8.12.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03>.

12 위의 글.

다. 이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비판적 읽기가 필요하다.

1975년에서 1981년에 걸쳐 연재된 소설 『여명의 눈동자』는 이후 드라마, 뮤지컬, 그리고 웹툰까지 다양한 매체로 다시 재생산되었지만 여자 스파이 서사를 결합한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생산된 ‘여명의 눈동자들’의 공통된 줄거리를 살펴보자.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 주인공 윤여옥은 ‘정신대’로 징모되어 중국 전장으로 가게 된다. 일본군의 기지에 만들어진 위안소에서 조선인 군인이었던 최대치를 만나게 되고,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며 사랑하게 된다. 위안소에서 여옥이 대치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대치의 부대는 버마로, 여옥은 사이판의 위안소로 보내진다. 사이판이 미군에게 점령되어 위안소에 있었던 여옥이 미군의 포로수용소에 갔을 때에는 조선인 군인이었던 하림의 도움으로 아기를 낳게 된다. 출산 후 여옥은 미국 OSS의 첩보원 교육을 받고 일제하 조선으로 침투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 그러나 해방 직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게 되고, 가혹한 고문을 받던 중 해방을 맞이한다. 미군은 해방 이후 여옥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여옥은 미정보부의 사무원으로 일하게 된다. 함께 미정보부에서 일하던 하림과 여옥이 결혼을 하기 직전, 이복에 있던 대치가 여옥을 찾아와 하림과의 결혼은 무산된다. 대치는 여옥에게 미정보부의 주요 정보를 빼내라고 요구해 여옥은 서류와 정보를 대치에게 전달한다. 이후 한반도에서 10월 항쟁과 제주 4·3, 여순사건,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여옥은 아들을 잃고 지리산에서 빨치산이 된 대치와 죽음을 맞이한다.

식민지 조선인 여성 여옥은 일본군에 의해 일본군‘위안부’이 되어 전쟁터로 가게 되었다가, 미군 OSS 요원 교육을 통해 스파이라는 신분이

되어서야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남방의 사이판으로 가게 되었던 일본군‘위안부’가 이제 미국의 스파이로서 국경을 넘어 한반도로 돌아오는 것이다. 일제 말기 스파이 담론에서 여자 스파이는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고, 외국어에 능하고, 외국인과 친숙하게 지내며, 외국의 지식을 습득한 여성들로 성적 능력을 통해 남성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존재였다.<sup>13</sup> 이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국제적이거나 초국가적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공포, 근대적 지식과 권력을 지닌 여성에 대한 공포를 동반하고 있다.<sup>14</sup> 『여명의 눈동자』에서 여옥은 미군의 스파이 교육, 즉 영어를 배우고, 무기를 사용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OSS 훈련 이후 조선으로 돌아온다. 이 소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경험을 가진 여성이 조선으로 귀환하는 것은 미군의 스파이가 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는 일본군‘위안부’의 귀환이 가부장적 민족공동체에서 수용 가능한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옥은 미군의 ‘적’인 일본군에게 일본군‘위안부’라는 성적 ‘피해’를 당한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자, 조선인 학병의 아이를 낳은 조선인 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미군의 여자 스파이가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군‘위안부’로 국경을 넘어 전장으로 갔던 조선인 여성은 미군을 위해, 혹은 민족을 위해 일할 스파이 여성으로서 조선에 가시적 ‘귀환’을 할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들이 조선으로, 혹은 조선인으로, 또는 고향으로의 가시적 ‘귀환’/‘귀향’이 불가능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든다.

일제 말기에는 ‘스파이 담론’이 유행한다. 이는 식민지배에서 ‘좋은

13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214~216쪽.

14 위의 책, 214쪽.

일본인'을 만들기 위한 적대로서의 스파이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이 구조는 여자 스파이가 적대를 통해 민족 공동체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여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파이 교육에 선정된다.

첫째, 그녀는 보기 드물게 미인이라는 점이다. 적지에서 첩보공작을 함에 있어서는 미인계가 절대 필요하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둘째, 그녀는 조선 여인들 중에서는 인텔리에 속한다는 점이다. 여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능력이 있고, 판단에 정확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인텔리 여성일수록 교육시키기에 편리하다.

셋째, 그녀는 조선인일 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짓밟힐 대로 짓밟혀 날개도 잘리고 살도 뜯기고 뼈도 갇아먹힌 위안부 출신이다. 따라서 일본군에 대한 증오심과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다. 이 증오심과 원한을 이용하는 것이다. 증오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사명감에 불타기 마련이다.

넷째, 그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위장이 될 수 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을 의심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그녀는 나이가 어리다. 이것 역시 좋은 안전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이가 어린 만큼 순수하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훌륭한 첩보원이 될 수 있다.<sup>15</sup>

마타하리와 같은 '스파이 담론'은 성적 능력을 가진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남성을 파괴한다는 것이었고, 여옥은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여자 스파이'라는 자체가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위협적이었다

15 김성중, 『여명의 눈동자 3』, 남도, 1991, 23~24쪽.

면, 미국에게 있어 조선인 학병의 아들을 낳은 여옥, 즉 조선인 아들의 어머니(=민족의 어머니)라는 것이 미국과 민족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작동한다. 조선인 아들의 어머니라는, 민족의 어머니라는 자격의 획득과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조선으로의 귀환이 가능해지게 된다.<sup>16</sup>

일년 전 추운 겨울, 어린 몸으로 전장에 끌려나와 무수한 남성들에게 유린당한 소녀가 이제는 한 아기의 어머니가 되어 모종의 임무를 띠고 적지를 향하게 되었으니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sup>17</sup>

OSS 요원이 되어 작전으로 투입되는 여옥이 생각했던 “한 아기의 어머니”는 단순한 의미의 ‘한 아기’가 아니라 조선인의 아들인 ‘한 아기’였고, 그것이 가져온 귀환의 자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 아들의 어머니’라는 자격이 여옥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식민지시기까지이다.

공산주의자 대치와 결혼한 뒤에도 계속 미정보부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여옥은 남편의 강요로 주요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가 된다. 결혼과 함께 미국의 무공훈장을 받은 조선인 여성, 조선인 아들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에서 ‘빨치산의 아내’, ‘빨치산의 아들의 어머니’로 바뀐다. 적대를 통해 민족 공동체를 지킨 조선인 여자 스파이에서 ‘남한 단독정부’를 구성하는 적대로서의 여자 스파이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아시아태평양 전쟁 중 미국과 민족을 위해 활약하

16 “『여명의 눈동자』에서 여옥이 포로수용소에서 하림의 도움을 받아 출산을 하는 장면은 신비화되어 신화처럼 묘사된다. 출산 이후에도 여옥은 여전히 ‘성적대상’으로 타지화되지만, 한편으로 ‘조선인 아들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은 보호의 근거로 작동한다.” 장수희, 「일본군‘위안부’ 서사자료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22, 130쪽, 각주 262.

17 김성중, 앞의 책, 52쪽.

는 여자 스파이로 생존하게 해 주었던 근거조선인 학병의 아들은 이제, 남한의 적대로서의 ‘빨치산의 아들’이 된다. 나아가, 한국전쟁 중에 발생하는 아들의 죽음은 탈식민과 냉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남한의 재현체계가 ‘조선인의 아들’ 중에서 ‘빨치산의 아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sup>18</sup>

### 3. 사라진 흑인 미군과 계속되는 인종적 편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설 『여명의 눈동자』의 영화화는 1981년에 이어 1988년에도 우진필름의 정진우 감독이 시도했으나 완성되어 개봉하지 못했다. 이후 1991년이 되어서야 MBC가 창사 30주년 특집극으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제작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방송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의 인기는 거의 전적으로 각색의 힘이며 드라마의 감동으로 원작 소설을 찾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각색자 송지나 씨는 70년대 스포츠신문 연재소설로 발표됐던 원작에서 부분부분 포르노추리소설적 요소를 제거하고 반공소설의 골격을 다듬어 비교적 균형 잡힌 역사드라마를 만들어 놓았다. 줄거리도 많은 부분 원작과 다르다. 가령 반민특위 등도 각색자가 새로 첨가한 대목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sup>19</sup> 즉, 1970년대 냉전, 그리고 반공군부독재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생산된 소설과,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리고 소위 ‘민주화’ 이후 제작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는 그 생산 시기

18 장수희, 앞의 글, 130쪽.

19 「영상매체 베스트셀러 만든다」, 『한겨레』, 1992.1.31.

만큼이나 서사의 흐름에 대한 입장도 많이 달라져 있다.

소설 『여명의 눈동자』에서 여옥이 사이판의 포로수용소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림을 만나 하림의 도움으로 출산을 하게 된다. 그곳에서 여옥을 좋아하게 된 미군 흑인 병사 조니는 여옥에게 계속 청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게 되었다. 죽기 전 조니가 여옥을 보고싶어 했기에 여옥은 병원으로 갔고, 병상에서 조니가 하는 청혼을 받아들여 병원에서 즉석 결혼을 하게 되었다.

주례를 맡은 군목은 감동적인 목소리로 성경 귀절을 읽어나갔다. 그것이 끝나자 미군들의 조용한 합창이 있었다. 이윽고 군목은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쥐고 그들이 부부임을 알렸다. 조용히 박수 소리가 일었다.<sup>20</sup>

다소 인간적인 교류처럼 보이는 흑인 병사와 여옥의 결혼 장면이지만, 수용소 안의 생활 속에서 수용된 자와 미군이 대등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검둥이의 육체를 거부할 힘이 없었”<sup>21</sup>고, 여옥의 집으로 계속 찾아오는 미군 병사 이야기는 해방 이후 미군 ‘위안부’ 서사와 너무나 닮아 있다.

“참,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당신은 미국법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있어. 조니라고 하는 병사와 사이판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그 미망인으로서 충분히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sup>22</sup>

20 김성중, 『여명의 눈동자 3』, 남도, 1991, 21쪽.

21 위의 책, 19쪽.

22 위의 책, 52쪽.

놀랍게도 소설 속에서 여옥은 흑인 병사와 정식 결혼을 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소설 속 여옥과 미군 흑인 병사와의 에피소드는 해방 이후 미군‘위안부’ 서사와 겹쳐 읽게 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있었던 시기와 미군‘위안부’ 피해가 있었던 시기가 완전히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을 점수하여 미군들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가난하고 권력과 가장 멀었던 식민지 여성들은 기지 주변에서 다른 인종의 군인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미국시민권을 획득해 두면 ...(중략)... 위협에 빠졌을 때 미국의 힘을 빌릴 수가 있거든. ...(중략)... 좋다면 내가 수속을 밟아 놓지.”<sup>23</sup>

흑인 미군의 미망인으로서 시민권을 신청하라는 아알티 소령의 제안에 소설은 “고개를 끄덕거렸다”<sup>24</sup>라고 쓰고 있다. 감사의 의미라고 쓰고 있지만, 고개의 끄덕거림은 긍정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후 아알티가 여옥의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서류와 절차를 준비했는지, 그래서 여옥이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곧 해방을 하고 미국의 무공훈장을 받은 여옥이 나올 뿐이다. 앞장의 논의에서 ‘조선인 아들의 어머니’로서 조선으로 귀환하게 되는 여옥은 한편으로는 흑인 병사의 아내인 OSS 요원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흑인 미군 병사와 조선인 일본군‘위안부’였던 여옥과의 결혼,

23 위의 책, 52쪽.

24 위의 책, 52쪽.

시민권 획득 관련된 내용은 이후 제작된 드라마와 뮤지컬, 웹툰 등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는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일본인 일본군‘위안부’ 여성이 백인 미군과 같이 다니는 장면이나, 일본인 일본군‘위안부’를 강간하려는 흑인 병사를 총으로 쫓아내고 자살하는 장면으로 재구성되었다. 1980년대 반미 운동의 영향과 미군과 기지촌 주위의 여성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반영된 서사구성 일 것이다.

소설 『여명의 눈동자』 속에서 끊임없이 흑인 병사를 ‘검둥이’라고 지칭하고, 드라마, 뮤지컬, 웹툰 등에서도 장교는 백인으로 재현하는 것, 그리고 드라마에서 강간을 시도하는 병사가 흑인 병사인 것은 한국사회의 강한 인종적 편견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 4.4.3 서사의 복권과 일본군‘위안부’ 재판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위안부’ 드라마라고 하면 1991년에 방영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먼저 떠올린다. 드라마를 각색한 송지나는 자신이 각색한 <여명의 눈동자>의 각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대치가 난폭한 인물인 것이 싫었다. 원작에서 대치는 후반부로 가면 서 강간도 서슴치 않는 잔인한 인물이 되어 간다. 유신 정권 아래에서 쓰여진 원작은 공산주의자인 대치를 인간적으로 그리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치가 좀 더 따뜻한 일몰이기를 바랐다. …(중략)… 하림의 성격을 만드는 일은 아주 어려웠다. 휴머니티를 기초로 하는 인간은 잘못하면 나

약해지기 십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선인이 되기도 쉽다. 더구나 하림은 한 여자를 끝내 사랑하는 순정괴여야 하고, 그러면서도 역사를 관조할 수 있는 지식인이 되어야 하며 또 미군정의 줄개가 되는 모순의 인물이다. …(중략)… 여옥도 좀 더 강한 여자가 되어주길 바랬다. 여옥은 기본적으로 정신대를 거친 여자다. 소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청초한 처녀성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쓰면 그만이지만 드라마에서는 시청자가 여옥을 보면서 “야, 청초하다”고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sup>25</sup>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군인 서사와 함께 전개된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전개에 대한 역사적이고 시각적인 설명과 함께 일본 군인이었던 최대치와 장하림,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였던 윤여옥의 서사가 전개된다. 드라마는 전쟁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스케일로 전개되고, 사회주의 진영으로 가게 되는 최대치와 미군 쪽으로 가게 되는 장하림의 서사가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개된다.

1970년대 냉전의 한 가운데에서 쓰여졌던 소설 『여명의 눈동자』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은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으로 편향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데 비해,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는 해방 전후의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현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1991년, 그리고 민주화 이후 역사인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드라마 속에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한국 사회 속에서 문화적으로 재현될 수 없었던 해방 직후 좌익에 대한 서사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속에서 여러모로 복권되고 있

25 송지나, 「내 피를 말린 “여명의 눈동자”」, 『샘이 깊은 물』, 1992.3.

다. 이렇게 복권되는 서사는 9월 총파업을 비롯한 10월 항쟁, 제주 4·3, 반민특위의 무력화 과정이 드라마 속에서 설득력을 가지게 그려진다.

제주 4·3항쟁에 대한 묘사는 획기적인 성과였음에도 제주도민의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감이 있다. 미군정의 남로당 탄압, 3·1절 집회에 대한 발포, 5·10 단선에 대한 도민들의 끈질긴 반대 등 정치적 배경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처리된 반면, “경찰이 주민을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운다”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느낌이다. 이 점은 남로당 지도자 김달삼과 국방경비대 제8연대장 김익렬의 담판 장면이 회화적으로 묘사된 데에서도 드러난다. 김달삼은 미군철수와 반동경찰 추방 및 제주도민에 의한 자치를 요구하다가 주동자의 안전한 피신을 약속하는 김익렬의 제안을 수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sup>26</sup>

또한 소설에서는 ‘제주 폭동’으로 다루어졌던 4·3이 드라마에서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민간인들의 피해 상황과 국가 폭력의 상황을 재현한다. 원작 소설에서도 10월 항쟁과 4·3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냉전과 군부정권 중에 쓰여진 작품이라 냉전의 구도를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1년 드라마로 방영되었을 당시에도, 3·1절 집회에 제주도민에 대한 발포와 죽음, 5·10 단선에 대한 도민들의 정치적 반대까지는 드러내지 못하고 드라마와 영상적 장치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처리된다.

〈여명의 눈동자들〉 뮤지컬에서 두드러지게 확장된 서사는 역시 4·3

26 MBC 노동조합 거레현대사연구 모임, 「'인간'과 '역사'의 줄다리기」, 『길을찾는사람들』 92(2), 1992, 218~219쪽.

과 관련된 부분이다.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영상적 장치를 활용하여 간단히 회화적으로 축약되었던 부분을 뮤지컬에서 복원시킨 것이다. 4·3과 관련된 내용은 여옥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하림이 증인석에 불러나와 서술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뮤지컬로 확장되어 제시되고 있다. 여옥의 법정에서 하림이 증언하는 내용은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사고로부터 시작되어 제주도민들과 경찰의 대치,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도민 학살에 대한 증언으로 이어진다. 이는 4·3이 국가폭력이었음을 인정하고 국가수반의 사과가 있었던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만들어진 서사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명의 눈동자』는 한국전쟁까지 한국의 근현대를 망라하는 시간적 배경을 가진 소설이다. 이 소설이 처음 쓰인 1970년대와 냉전이 끝나고 억압되어 있던 역사적 증언들이 시작될 때 드라마로 제작된 1990년대, 국가의 국가폭력 인정,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이 축적되어 온 2020년 모두 조금씩 다른 재현과 서사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서사들의 비슷함과 차이들 속에서 한국사회의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는 대중서사이기에 가능한 분석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여옥은 스파이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였음이 다시 한번 밝혀지게 된다. 재판정의 피고석에 앉게 되는 일본군‘위안부’ 여성은 1970년대의 소설 속 재현에서도, 1990년대의 드라마 속 재현에서도 변함이 없다. 실제로는 1990년대 초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법정에서 원고로서 제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추궁을 받는 자로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재판의 원고로서 재현되게 되는 것은 훨씬

시간이 흐른 뒤에 만들어지는 재현물들 속에서 발견된다. 소설 『여명의 눈동자』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삭제되거나 침묵 당하고 있었던 현대사의 여러 서사들을 복권시키고 있지만, 역시 1990년대 초반의 한계 또한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냉전 당시에 만들어진 일본군‘위안부’ 서사를 드라마로 다시 만드는 과정은 동아시아의 다른 이야기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보여준다.

뮤지컬에서는 일단 시간적 구성이 바뀐다. 과거에서 현재로 순행적 구성으로 만들어진 소설과 달리 뮤지컬에서는 여옥의 죽음이 먼저 제시되고 재판정에 선 여옥의 증언에서 과거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시작된다. 과거 사건들이 제시되는 것은 여옥이 재판정에서 과거를 서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증언도, 여옥의 입을 통해 직접 말해지는 것이 뮤지컬로 보여지는 것이다. 여옥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증언을 하기 전 법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공격과 다르지 않다.

검사: 일본군 위안소 / 피고가 돈을 벌었던 곳

변호사: 이의 있습니다. 돈을 벌다니요! 피고는 강제로 끌려갔던 겁니다.

검사: 부인할 수 없어 / 여기 또 다른 증거 있으니. / 전표가 남았어. / 그  
너가 몸을 팔아 받았던. / 남편과는 손님과 접대부로 만난 거군요?

...(중략)...

방청객들: 당장 잡아들여 죄 값을 물어 / 항상 반복 되는 역사 / 두 번 다  
시 속지 않아 / 반역자를 처단하라 / 저 여자를 /

...(중략)...

대부분은 친일파이거나 친일파들에게 돈을 받고 포섭된 자들이다.

www.kci.go.kr

반민특위로 인해 궁지에 몰린 친일파들은 남북으로 나뉘어진 당시의 정국을 이용 자신들에게 쏠린 시선을 빨갱이 사냥으로 돌리려 한다.

때문에 이들에게 윤여옥은 목숨을 걸고 빨갱이로 몰아 죽여야 하는 대상이다.

1950년 2월 서울이라는 한국전쟁 직전이라는 시간적 배경 속에 있는 재판 장면은 탈/후식민과 냉전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역사적인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운한 개인의 일탈행위나 상행위로서만 취급된다. 이러한 장면은 국내적으로는 식민지 역사청산을 하지 못했던 장면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는 전후 전범재판에서 전시 성폭력이나 젠더에 기반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처벌되었던 많은 역사적 사건과 겹쳐 읽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 5. 중국 ‘여명의 눈동자’의 변화

소설 『여명의 눈동자』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그리고 그 영향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두 편의 중국영화 〈군기위안부〉와 〈여명의 눈동자〉라는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1975년 군부독재와 냉전 중 쓰인 『여명의 눈동자』, 냉전 이후의 시기에 제작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그리고 〈여명의 눈동자〉 제작에 영향을 받은 중국 감독의 자국 일본군‘위안부’ 영화의 제작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영향관계 속에서 일본

군‘위안부’ 서사가 단순히 소설-영화-드라마로 매체와 장르가 바뀌어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공주의 서사 속 반공 체제를 구성하는 일본군‘위안부’, 탈냉전 시대의 민족대서사시를 구성하는 피해 서사로서의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만들어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 영화도 민족주의적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영화 속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1930년대 평림이 재현한 일본군‘위안부’ 서사와도 차이점을 보여준다.<sup>27</sup>

한국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중국 촬영의 현지 코디네이터였던 여소룡 감독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제작한 영화가 〈軍妓慰安婦(군기위안부)〉다른 제목 〈지옥은 도대체 몇 겹인가(地獄究竟有幾層)〉였다. 그리고 이 영화를 다시 2014년에 〈黎明之眼(여명의 눈동자)〉로 만들었다. 1992년과 2014년이라는 22년의 시간차는 중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이나 입장을 추측해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두 영화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각각의 영화라기보다 개작에 가깝기 때문에 두 영화의 서사를 비교해 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먼저 1992년에 제작된 〈군기위안부〉의 주인공은 아키야마라는 상해에 파견된 일본인 여기자이다. 일본군은 일본인 기자인 아키야마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인 나카무라를 함께 다니게 한다. 일본 군영에 위안소가 있으니 취재해 달라는 기사 의뢰를 서양 언론사로부터 받은 아키야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취재를 위해 군대 위안소로 잠입취재를 가게 된다. 그리고 위안소에서 조선인 ‘위안부’를 만나 일본군‘위안부’ 여성을 인터뷰한다. 아키야마는 ‘위안부의 지옥과 같은 생활’이라는 기사를 내고 일본 군부에게 쫓기게 된다. 일본군에 잡힌 아키야마는 위안

27 장수희, 앞의 글, 182~186쪽.

소에 보내져 일본군‘위안부’가 되게 된다. 아키야마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글로 기록하려고 하는데, 이후 아키야마는 매독에 걸리고 군대는 아키야마를 731부대로 보낸다. 전쟁이 끝나자 731부대에 갇혀 있던 아키야마가 썼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록은 불태워진다.

이 영화는 엘리트 여성이었던 일본인 여성 기자가 군부의 보복으로 일본인 일본군‘위안부’가 되어 자신의 경험과 일본군의 만행을 기록하지만, 결국 매독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역사적 기록은 사라져 버린다는 내용이다. 오랜기간 피해자들의 침묵과 고통, 그리고 일본군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제작된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위안소 안의 조선인 여성들과 중국인 여성들이 전쟁 속에서 어떤 희생을 당했는지를 그리려 하지만,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군기위안부>의 내용이 2014년에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한 할머니가 난징의 위안부 역사관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할머니의 회상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름은 아키야마였고 일본의 유명한 신문기자였다. 상해의 일본군은 아키야마를 지키기 위해 군인 나카무라를 보내준다. 기자클럽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얘기를 들은 아키야마는 믿을 수 없지만 위안소로 잠입해 조선인 ‘위안부’를 인터뷰한다. 집으로 돌아온 아키야마는 아버지와 상담하지만 아버지도 어쩔 도리가 없다. 아키야마의 기사가 신문에 난 후, 집으로 돌아온 날 아키야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 군인에게 살해되어 있었다. 죽기 직전 아키야마의 아버지는 아키야마에게 편지를 남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아키야마는 원래 중국인이며 이름은 류화메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을 지켜주던 군인 나카무라와 아키야마는 피신을 하는데, 피신하는 과정에서 나카무라가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며 이

름이 황쯔첸임을 밝힌다. 류화메이화 황쯔첸은 신분이 노출되어 상해를 떠나 버마로 도망한다. 그러나 곳이어 버마도 전화에 휩싸이고 전쟁 중 황쯔첸과 딸, 류화메이 가족이 헤어지게 된다. 류화메이는 도망 중 일본 군에 잡혀서 위안부가 되고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죽지 않는다.

한편, 류화메이의 딸과 남편은 전쟁에서 외국에서 살면서 류화메이가 혹시 살아있지 않은지 계속 찾고 있었다. 류화메이를 치료하던 의사는 류화메이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류화메이가 자신의 할머니임을 알게 된다. 가족이 모두 상봉하고 같이 살게 되지만 류화메이가 PTSD로 고통을 겪을 때 했던 말들 때문에 가족 모두가 위안부였음을 알게 된다. 의사인 손녀는 자신의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힘들어한다. 건강을 점차 회복한 류화메이는 일본군‘위안부’였음을 증언하는 회고록을 쓰려고 한다. 이 회고록 때문에 가족들은 세상에 류화메이가 일본군‘위안부’였음이 밝혀지는 것을 괴로워하고 결국 류화메이는 가족들을 떠나기로 한다. 일본군의 범죄행위를 밝히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류화메이가 집을 떠나자 가족들이 모두 류화메이를 찾아 헤매다가 류화메이가 강 위 철교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류화메이는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절규한다.

20여년의 시간차를 두고 다시 만들어진 중국의 <여명의 눈동자>는 류화메이의 생존과 증언을 통해 일본군‘위안부’가 단지 ‘이야기’일 뿐 아니라 역사임을 드러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군기위안부>에서는 일본인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여명의 눈동자>에서는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음이 밝혀진다. 피해자의 민족이 일본인에서 중국인으로 바뀐 것,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중국내에서의 영향력은 90년대 이후 중

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진행과정과도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연구가 진행되면서 중국인 피해 여성들에 대한 관심, 역사관의 설립 등이 2014년판 <여명의 눈동자>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이 영화 속에도 등장하고 주인공의 증언과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중국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역사적인 문제이며 분노의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 피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문화적 인식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1992년과 2014년에 제작된 여소룡 감독의 영화에서 일관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역시 ‘기록’이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록,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와 동세대에 어떻게 전해지고 함께 기억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1992년 영화 <군기위안부> 속 아키야마가 직접 쓴 증언과 2014년 <여명의 눈동자> 속 류화메이가 쓴 회고록은 각각 일본군대에 의해 불태워지고, 가족들에 의해 부정된다. 여소룡은 두 영화를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와 증언이 전해지고 기록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한 것이다.

## 6. 결론

이 논문에서는 1977년부터 생산된 소설 『여명의 눈동자』가 1991년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로 재생산되고, 이후 2020년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웹툰 <여명의 눈동자>로 재생산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이라는 냉전과 군부독재가 한창이던 시기에 생

산된 소설 『여명의 눈동자』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어떠한 역사적 서사를 중점적으로 바꾸어 가면서 생산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냉전시기에 반공주의에 치우쳐서 서술되어왔던 4·3에 대한 서술이 1991년 드라마로 제작되었을 때와 2020년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로 제작되었을 때 확연히 다르게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설 『여명의 눈동자』는 처음 연재될 때부터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이후 드라마와 뮤지컬, 웹툰으로 재생산될 때에도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역사적 인식이 변함에 따라 4·3과 한국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역사적 인식에 맞추어 재구성되고 재생산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추이를 보면, 이후 소설 『여명의 눈동자』를 원작으로한 서사물이 제작될 때 소설 『여명의 눈동자』가 다루었던 일제시기와 해방기, 그리고 한국전쟁기의 역사 또한 그 시기에 맞게 다시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국교 수립 전의 중국에서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제작 활동이 중국 감독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켰음을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여명의 눈동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 제목이 붙은 중국 일본군 ‘위안부’ 영화의 제작은 일본군 ‘위안부’ 서사가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이 곳에서 시작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성중, 『여명의 눈동자』 1~10, 남도, 1977~1981.  
영화 <軍妓慰安婦(군기위안부)>, 1992.  
영화 <黎明之眼(여명의 눈동자)>, 2014.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지인우[각색], JACO[작곡/편곡], 노우성[연출], 2020.  
웹툰 <여명의 눈동자>, 권영아[글], 포스스튜디오[그림], 크릭앤리버엔터테인먼트, 2020.

### 2. 단행본 및 논문

- 권영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권성훈, 「김종학 드라마의 이데올로기 구조와 문학적 재현방식: <여명의 눈동자>(MBC, 1991)와 <모래시계>(SBS, 1995)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89, 2023.  
김환표, 「TV 드라마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TV 드라마의 제작문화사(1956~2008)」,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09.  
백두산, 「민주화 이행기 텔레비전 드라마의 분단 재현 방식: <여명의 눈동자>를 중심으로」, 『스토리&이미지텔링』 15, 2018.  
송지나, 「내 피를 말린 “여명의 눈동자”」, 『샘이 깊은 물』, 1992.  
안경석·이장원·이국세·장소경, 「여명의 눈동자에 나타난 무대조명 디자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 2013.  
이호은, 「TV 드라마 작가론에 관한 연구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의 작가 송지나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9.  
전동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극 속 여성 하위주체의 젠더 수행성: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파친코>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23.  
Beglova Ekaterina, 「김성중 추리소설 연구: 80년대 장편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0.

### 3. 기타자료

- 「영상매체 베스트셀러 만든다」, 『한겨레』, 1992.1.31.  
「<여명의...> 제작 중단 정진우씨 구속으로」, 『동아일보』, 1981.4.8.  
「<여명의 눈동자> 촬영 재개 정진우 감독 보석으로 풀려」, 『경향신문』, 1981.5.2.  
「사상최대 제작비 35억 <여명...> 5월 크랭크인」, 『경향신문』, 1988.4.19.  
「국내 최대 영화인 6시간짜리 2부작으로 제작되는 <여명의 눈동자>」, 『경향신문』, 1988.4.19.  
윤빛나, 「여명의 눈동자, 이원국발레단 만나 창작발레로」, 『독서신문』, 2012.9.19.  
오현주, 「일간스포츠에 두 작품 동시 연재...전무후무한 일이죠」, 『백세시대』, 2016.8.12.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03>  
李剛, 「呂小龍掌鏡慰安婦電影《黎明之眼》最接近李小龍的打星還血性」, 『北京晚報-北晚新視網』, 2014.9.15. <https://www.takefoto.cn/viewnews-166286.html>

## Abstract

### The Eyes of Dawn

The translation on era and the crossing of the boundari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rrative

Jang, Soo-hee\*

This study tracks how *Eyes of Dawn*, the most popula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rrative since the 1970s, has changed as it has been repeatedly reproduced by changing media since the 1970s, and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change. First, the novel *Eyes of Dawn* is a text that follows the narrative about the life before becoming a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the life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s, and the life after the war in chronological order. Using this novel as the original text, the drama *Eyes of Dawn* was later created in the 1990s. Director Yeo So-ryong, who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drama *Eye of Dawn*, which was popular in Korea, produced *Eyes of Dawn* in China. The webtoon *Eyes of Dawn* faithfully reproduces the original and drama. In addition, the musical *Eyes of Dawn*, produced at the same time, was produced as a work that reinstates the history of 4.3 in the limited time and space of stage performances.

Keywords *Eye of Dawn*, Kim Sung-jong,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rrative source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4-3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Dong-a University.

